

# 철도시설 지진감시시스템으로 지진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

- 25일부터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관계기관 합동점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하여 관계기관 합동\*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. \*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
  -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\*하고 있다.
    - \* 지진발생(3.0 리히터 이상) 횟수(기상청) : ('20) 5회, ('21) 5회, ('22) 8회, ('23) 16회
  - '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.4 리히터, 올해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4.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.
  - 특히,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시 인명·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.
-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\*에 대해 진동 측정,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. 현재 철도역사, 교량,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.
  - \* (지진감시시스템) 지진계측센서에서 진동을 실시간 측정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로 전송하고, 기준이상 진동 감지 시 경보 발생 및 운행 통제 연계
- 또한,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,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 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응 매뉴얼도 점검한다.

- 이상이 확인된 지진감시시스템은 즉시 수리 및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최근 대규모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, 내진설계와 안전점검뿐만 아니라,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”며,
  -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·관리와 함께 지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유인 (044-201-4623)
		담당자	서기관	오한영 (044-201-462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

## 참고

### 철도분야 지진감시시스템 현황

- (개요) 고속·일반철도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노선상의 지진동 정보를 측정·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
- (주요기능) 지진계측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철도교통관제 센터로 전송하고, 기준이상 진동 감지 시 경보를 발생하여 운행 통제
- (설치현황) 장대교량, 철도역사, 변전소 등 주요시설(99개소) 계측 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(2개소) 운영

계	관제	고속선			일반선		
		교량	역사	기타	교량	역사	변전소
101	2	48	17	1	2	8	23

### □ 운용기준 및 조치

종 류	규정치 및 근거	열차운행 및 조치사항
녹색경보	15gal~40gal 미만	(열차) 조치사항 없으며 이벤트 발생을 관제사에게 알림
황색경보	40gal~65gal 미만	(열차) 일단 정차 후 최초열차는 90km/h(일반선 30km/h)이하로 주의운전 - 지진영향권의 주요시설물 긴급점검
적색경보	65gal 이상	(열차) 즉시 정차 및 최초열차는 30km/h이하로 주의운전 - 지진영향권의 주요시설물 긴급점검

알람종류	알람 한계치	알람 표출 방법
적색경보	65gal 이상	경보기 점멸 및 경보음 모니터 이벤트 발생
황색경보	40gal~65gal 미만	경보기 점멸 및 경보음 모니터 이벤트 발생
녹색경보	15gal~40gal 미만	경보기 점멸 및 경보음 모니터 이벤트 발생